

아파트는 한국이다
- '아파트'라는 이름의 욕망

박철수

한국인의 삶에서 아파트를 빼놓고 설명할 수 있을까? 한국인의 절반 이상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빔을 내서라도 아파트에 거주하고자 하며, 아파트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같은 평수에 맞춰서 친소 관계를 맺는다. 이처럼 아파트는 현재 한국인의 대다수가 원하는 익숙한 주거 양식이지만 우리에게 도입된 것은 100년 남짓의 역사밖에 되지 않았다.

현재 아파트로 대표되는 우리의 주거양식에 대해서 고찰해보기 위해서는 아파트가 우리에게 보급되는 역사를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한국에 막 도입되기 시작한 1920~1930년대 한국 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당시는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서양의 근대주의 사상이나 문물의 상당한 내용들은 일본을 통해 한국으로 번역, 전수되었다. 아파트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았고 그들이 생각한 아파트가 무엇이었는가를 확인하려면 일본사람들이 생각하던 아파트가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세밀하게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이다.

아파트는 단순히 높은 층수의 주거공간이 아니다. 아파트는 층수와 세대 규모뿐만 아니라, 세대 거주자의 특성과 분양이나 임대와 같은 점유 방식을 포함한 그 밖의 요소들을 어떻게 보태어 생각할 것인가로 인해 사유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다.

주요 논의 내용

- 1920년대 일본의 아파트
- 한국에 이식된 최초의 아파트
- 정부가 주도한 아파트의 계획적 건축
- 아파트 단지의 대대적인 건설
- 단지형 아파트의 탄생

마포아파트는 한국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다. 10층의 초대형 아파트로 의도하였던 초기 구상이 여러 가지 이유와 곡절로 6층짜리 아파트와 주거동 10동으로 최종 마무리되었다.

마포아파트 단지(1962년 1차 준공)는 주거지를 고층화하려는 최초의 시도였다. 이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주택사업의 일부로서 책정된 것으로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중산층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고자 추진되었으며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당초에 10층으로 계획되었는데 실제 건설과정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경제협조회의 반대와 전기사정, 기름부족, 열악한 상수도 사정 등의 장애 요인으로 인해 6층으로 낮추어 건설되었다.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고층주거형식이었던 마포아파트 단지는 구상과 개발 초기 단계부터 생활 혁명이라는 정치적 의도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고밀개발의 요구가 결합하여 만들어졌다.

박철수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일했으며, 2002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에서 학생들과 함께 역사이론에 바탕을 두고 정책과 제도를 포함한 주거건축의 다양한 분야를 횡단하는 문화사에 주목하여 공부하고 있다. 저서로 『아파트와 바꾼 집』(공저), 『아파트의 문화사』, 『아파트: 공적 냉소와 사적 정열이 지배하는 사회』, 『근현대 서울의 집』, 『박철수의 거주박물지』가 있다.

마포아파트는 임대아파트였고 최초 임대 입주신청자는 전 세대수의 10% 미만이었는 데 연탄가스 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인기를 끌지 못하였다. 기존의 주거형식과는 달리 고층주택이라는 점이 대중들에게 수용되지 못했던 까닭이다. 대한주택공사 2대 총재를 역임한 박기석의 회고에 의하면 당시 서울시민들의 구매력은 형편 없었고, 분양가 역시 일반 시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비싸서 수요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마포아파트는 주위 도시공간과 철저한 절연을 통해 자폐성을 강화하는 ‘단지형’ 공간구성 방식을 택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아파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마포아파트로 대표되는 국가가 주도한 ‘단지화 전략’은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친 뒤인 1960 년대의 개발체제 진입 이후 보편적인 정책과 공간작법으로 안착되었다. 이런 이유로 마포아파트 단지를 한국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를 출발점으로 삼은 한국의 아파트 공간작법은 마치 세습처럼 굳건하게 자리하기에 이른 것이며, 여기에 ‘선분양 제도’가 보태지면서 아파트 단지는 대한민국의 보편적 욕망으로 굳어지게 된다.

*** (중략)

정리하자면 이렇다. 일제강점기에 한반도에 유입된 도시건축으로서의 아파트라는 건축유형은 100 년에 가까운 시간을 거치는 동안 국가주도의 단지화 전략과 민간 주도의 선분양 제도에 의해 자폐적이고 내부완결적인 ‘아파트 단지’로 귀결되었다. 이는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도시기반시설의 충분한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 생긴 한국의 독특하고 기형적인 결과물이다.

이 정교한 구조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 혹은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급격한 개인의 소득 수준 향상과 그에 따른 거주공간에 대한 욕구가 비판 없이 결합하며 선분양 제도를 공고히 하는 동기가 되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대한 편향적 선호를 강화하였다. 이는 곧 다양성을 거세한 완고하고 폐쇄적인 단지문화와 아파트 감수성을 굳건하게 하는 동시에 이를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아파트와 아파트 단지에 대한 욕망을 강화하는 기제가 된 것이다.

일시
2019년 4월 8일, 오후 7시 30분-9시 30분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본 강연은 촬영할 수 없습니다.
*강연 후 발송하는 문자 설문에 응답 부탁드립니다.